

〈일반논문〉

임진왜란기 禹拜善의 의병활동

박 순 진*

〈목차〉

- I. 머리말
- II. 창의를 배경과 의병 조직
- III. 의병활동의 전개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임진왜란 시기 소수 정예의 우배선 의병이 대구 주둔 왜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데 주안을 두었다. 임진왜란 초기 왜군의 진군과 함께 대구부가 점령되었다. 그 결과 민관군 2,000여 명은 대구부의 북쪽 팔공산으로 피해 방어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화원현 출신 24세의 젊은 의병장 우배선이 불과 100명 안팎의 소수병력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그의 주요 활동지역인 화원현은 대구부의 서남 지역으로 왜군의 대구주둔 진영을 교란시키기에 매우 용이한 지점이었다. 대구부를 점령한 왜군은 화원현에 진치고 있던 우배선 의병의 배후 기습의 위협 때문에 함부로 팔공산 지역을 공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비슬산의 산악과 낙동강, 금호강의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유인과 기습을 통한 유격전을 끈질기게 전개하여 왜군의 낙동강 수로 교통을 차단하였다. 그의 유격대의 전술은 성공적이었고 약 1년여 동안에 놀라운 전

* 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과를 거두었다.

그의 부대는 유격대 전술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특수부대로 조직되었다. 그는 전투에 나가서는 선봉에 서서 부대를 직접 진두지휘하였으며 전공은 부하장병들에게 돌리고 전리품은 공로를 가려 공정하게 배분하였고, 부대원들과 침식을 함께하며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부하대원들의 군공을 상하귀천을 구별하지 않고 빠짐없이 기록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전공에 따른 포상을 받게 하는 등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였다.

이들 유격대의 전투방법은 비슬산의 산악과 초지 및 습지를 낀 낙동강가의 요충지에 정예병을 매복시키고 적을 유인하여 기습하는 유격전이었다. 이들은 야간에 적을 기습하는 작전, 적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후미를 공격하는 작전, 그리고 다수의 적을 상대로 맞붙어 싸우는 접전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적이 지칠 때까지 괴롭히는 소위 ‘이소격중(以小擊衆), 이일대로(以逸待勞)’의 작전이었다.

이런 우배선 의병의 활동은 현풍현 이북, 하빈현 이남의 낙동강과 금호강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대구부 주둔 왜군의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대구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었고, 임란초기 북상한 왜군과 대구주둔 점령군 간의 보급로와 통신망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대구부를 지켜냄으로써 이후 영천성의 탈환과 뒤이은 경주성의 복성을 이루어내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주제어

우배선, 임진왜란, 의병, 유격전, 화원현

I. 머리말

壬辰倭亂은 조선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약 200년간 조선사회의 중추적 구성원이었던 사대부와 재지사

족들은 그때까지 그들이 지켜온 정신적 가치와 경제적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를 맞았다. 난의 초기, 官軍이 궤멸된 상태에서 義兵은 국토를 보전하는 주역을 맡았다. 관군이 재정비되는 시점을 거쳐 의병-관군의 연합 및 명나라 군대와와의 연합전선을 펼칠 때까지 1~2년간 의병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실로 막중한 과업을 수행하였다고 하겠다. 그들은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향토를 중심으로 적의 분탕을 막아내는 한편 적의 주둔지를 교란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향토방위에 매우 큰 역할을 해냈다. 그래서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져왔었고 임진전란사에 대한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¹⁾ 필자 또한 경상도 지역의 의병활동이 임진왜란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피는 노력을 계속해나가는 작업의 하나로서 우선 대구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의병활동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보면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경상우도는 대체로 왜군의 직접적인 피해가 적었으나²⁾ 경상좌도는 왜군의 진격로에 놓여 있

1)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로는 이형석, 『임진전란사』,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의병사』, 경상북도, 1990; 이장희, 「임진왜란 의병성격의 분석」, 『한국사론』 22, 1992; 김강식, 「임진왜란 의병활동과 성격」, 『부대사학』 17, 199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9-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1995; 이욱,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임진란연구총서』 2,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2012;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임진란연구총서』 2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2013;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등 수십 편에 이르는 연구 성과가 있다.

2) 물론 임란 초기에 최초로 창의한 곽재우의 의령 정암진 전투와 합천의 정인홍, 고령의 김면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남강, 낙동강을 방어함으로써 향토를 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왜군의 전라도 지역 진출을 차단함으로써 호남 곡창지대의 보급선을 끊어버린 대전과를 올렸다. 이러한 전과는 그들이 스승 남명 조식의 상무정신을 이어받아 병법을 중시하였고 임란에 닥쳐서는 기필코 왜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경상우도 의병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어서 적의 침략으로 거의 초토화되었고 정상적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였다. 이 같은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각 지역별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소규모 의병활동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료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란 직후 맹렬한 적의 공세에 초토화된 대구지역에서 이른 시기에 왜군의 주둔 기지를 공격하거나 주둔군의 공격을 방어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그 주역이 임란초기에 창의를 한 젊은 의병장 月谷 禹拜善이었다. 우배선은 화원현의 일개 유생으로서 임란 초기 국왕 선조의 효유문을 받기 이전에 이미 향리에서 자발적으로 창의를 하였다. 그는 당시 대규모 병력이 집결되어 있던 성주와 대구지역 방어에 기여한 자로서 소수정예의 결사대를 운용하면서 상하귀천의 구별 없이 의병대원들의 역할과 군공을 낱알이 기록으로 남긴 인물이다. 우배선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임란시기 대구부 의병활동 연구의 대상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우배선이 창의를 했던 花園縣지역이 임란 당시 행정구역상 경상좌도 대구부가 아닌 경상우도의 星州牧 소속이었기 때문에 대구부 의병활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가 남긴 『倡義遺錄』 등 유물과 유적이 뒤늦게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아 그에 대한 유품 등이 세상에 일괄적으로 공개되면서 대구지역 임진왜란 의병사를 재조명하려는 연구자들의 노력은 연구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자들은 대구부 의병들에 대하여 세심한 고찰을 하였고 관련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증함으로써 상당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우배선 의병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이수건의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우배선이 남긴 『창의유록』을 세세히 분석하여 의병부대의 내부구조와 그 전투·전과를 도표를 그려 소상하게 밝혔으며, 우배선의 후손에 의하여 편간된 『月谷實記』에 대하여도 정밀하게 검증함으로써 우배선의 의병활동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遊擊戰의

양상 등을 전반적으로 구명하여 그의 창의활동이 대구부 방어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였다.³⁾ 장동익 또한 ‘월곡 우배선의 임진의병활동’에 대한 연구로 창의활동의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그의 의병활동의 특이점과 임란 전공으로 이루어 낸 대구지역에서의 위상을 확인해 놓았다.⁴⁾ 그리고 이완재는 우배선의 의병활동과 사환의 과정 및 만년에 향리에서 실시한 종약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을 하여 그 내용을 밝혀놓았으며,⁵⁾ 박선정은 우배선의 창의활동과 군공에 따른 관직생활 및 그의 정치적 동향을 파악하였고, 사후에 추향된 바 있는 덕동서원을 고찰하면서 우배선의 인맥과 학맥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밝혀두었다.⁶⁾ 김경태는 임란 당시의 대구지역의 명군과 일본군의 동향을 살피고 학맥이나 인맥이 약한 우배선이 임란 초기에 많은 전공을 올린 요인으로 용기와 민중친화력에 있음을 제시하였다.⁷⁾ 그 외에 우배선의 스승이자 倡義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대구부 전체의 의병대장 서사원에 대하여는 우인수가 ‘낙재일기를 통해 본 대구지역 임란의병의 활동과 성격’에서 대구부 의병이 관군과의 연합으로

3)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2, 51~99쪽.

4) 장동익, 「월곡 우배선의 임진의병활동」,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우배선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181~220쪽.

5) 이완재, 「월곡 우배선 선생과 월촌의 종약」,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우배선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143~180쪽.

6) 박선정, 「월곡 우배선과 덕동 및 낙동서원」,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우배선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93~142쪽.

위 이수건, 장동익, 이완재, 박선정 연구자들의 각 논문이 월곡선생창의사업기념회 발간(1994),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에 종합적으로 게재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위 연구자들의 각 논문과 우배선의 『창의유록』, 『성주학원의병군공책』, 『월곡실기』 등이 함께 실린 이 책자를 저본으로 하고 각 지면을 인용 및 참고하여 논지를 전개하였으며, 각주에서는 위의 책, 앞의 책 등으로 표기하였다.

7) 김경태, 「임진란기 대구지역의 의병활동과 명군·일본군의 동향 -우배선 장군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임진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395~430쪽.

팔공산 지역을 지켜냈음을 밝히고 있다.⁸⁾

이처럼 자료를 논증하고 분석한 연구자들의 연구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우배선의 창의활동과 그 의의를 잘 규명해 놓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창의활동의 사상적 기반에 대하여 충분한 고찰이 되어 있지 않았고, 소규모의 병력으로 짧은 기간에 수많은 전과를 올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함을 느낀다. 특히 우배선 의병이 활약한 화원현 지역은 뒤로는 비슬산의 산악 지형을 끼고 앞으로는 조암들판과 대구 외곽을 흐르는 洛東江과 琴湖江이 합류하는 초지(습지)지역이 많았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전투방식과 지형지물의 이용법에 대하여 구명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고찰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배선이 남긴 『창의유록』과 『월곡실기』, 서사원의 『樂齋先生日記』 등의 기록물과 여타의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창의의 사회적 배경을 보다 자세히 밝히는 한편, 단기간에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을 좀 더 세밀히 찾아보려 한다. 그 방법으로 우배선 의병이 낙동강과 비슬산을 중심으로 유격전을 전개해나간 動線을 확인하고 당시 대구와 화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전투에 활용했던 지형지세의 이용법을 도면을 통해 좀 더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우배선이 남긴 『창의유록』과 『월곡실기』, 그리고 서사원의 『낙재선생일기』 등은 국가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 등에 비하여 객관성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나 임진왜란 당시의 생생한 전쟁 현장의 체험을 담은 살아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⁹⁾ 그러므로 여기서는 기존연구를 참고하면서 이러한 자료들

8) 우인수, 「『낙재일기』를 통해본 대구지역 임진왜란 의병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123, 2016.

9) 다만, 본고에서 주로 인용한 『창의유록』과 『월곡실기』에는 우배선의 사후 그의 후

을 활용하여 그의 소규모 의병부대가 펼쳐나간 유격전의 전개 양상을 지도, 도면(그림) 등의 작성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구명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첫째, 창의를 배경을 밝히면서 임란초기 대구의 상황과 창의를 사회·경제적 기반을 살피고, 둘째, 의병의 조직 과정과 구성원의 특색을 파악할 것이며, 셋째는 의병활동의 내용으로서 그가 활약했던 화원현의 지형적 특징과 지형지세의 이용법, 창의 당시 대구부 주변의 전투상황의 실상, 전략·전술의 구사 등 유격전 전개의 방법에 대하여 좀더 세밀한 구명을 할 것이다. 즉 우배선 의병이 이동하며 전투를 펼친 동선을 따라 전투과정을 살피면서 시각적으로 전투의 내용을 도면과 그림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유격전의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배선의 창의활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살필 것이다.

II. 창의를 배경과 의병 조직

임란초기의 관군은 왜군과의 접전에서 패배하여 궤멸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제대로 싸움도 하지 못한 채 산속으로 피난하기에 급급하였다. 임란초기 경상도 지역의 창의활동은 그것이 근왕의병이었던, 향토 수호 의병이었던 자발성이 강하였는데 초기 의병의 봉기를 어렵게 한 요인의 하나는 관군의 방해 작용이었다. 의병의 응모와 의병들에 대한 군사

손들에 의하여 편집되는 과정에 다소의 과장과 윤색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월곡실기』의 발문을 쓴 후손 우재악이 우배선이 주역에 매우 정통하여 원근의 학자들과 함께 강론한 점을 강조함으로써 우배선의 문사적 풍모를 드러내는 등의 과장된 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창의 당시 약 1,000여 명의 의병이 몰려들었다는 등의 과장이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마땅히 취사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적 재원의 조달을 막은 것이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들이 전투를 위하여 관의 무기나 곡식을 이용할 경우 곳곳에서 수령이나 관군이 반역 등의 죄명으로 고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의병의 모집에 호응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다.¹⁰⁾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관군은 왜군을 직접 상대하기에는 절대적인 약세였기 때문에 軍勢가 강한 의병들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란 초기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료나 관군들은 그들의 지위를 내세우며 위세를 부리고 사족 출신 의병장들로부터 지휘받기를 거부하였기에 잦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 일례로 임란 초기 난을 피해 다니던 경상도 관찰사 金晬와 경상우도 의병장 郭再祐와의 갈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招諭使 金誠一이 이들 간의 갈등을 조기에 조정¹¹⁾함으로써 영남의병들이 꺾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켰다. 이런 점에서 임란초기 영남의병의 활성화에는 김성일의 공로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김성일의 노력은 추락한 관의 권위를 회복하고 戰功이 있는 의병들을 관직제수 등으로 포상할 것을 조정에 품의하여 의병들의 사기를 높임으로써 거병의 명분을 분명히 해주었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임란초기의 대구부의 급박한 상황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배선의 창의 배경과 의병의 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0) 『조정선생문집』, 삼화인쇄, 1977, 180~183쪽.

11) 임란초기 경상도 지역 의병활동에 대한 지원 및 의병-관군의 조정역할에 대하여는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2001, 혜안, 124~140쪽을 참조하였다. 저자는 초기 의병의 실상과 김성일의 초당적 지원 및 활동에 대하여 매우 세밀한 분석을 해 두었다. 그 외 종합적인 연구서로 이태진 외, 『김성일과 임진왜란』, 보고서, 2019를 참고하였다.

1. 임란초기 大邱의 상황

임란 이전까지도 조선의 관방체제는 각 군·현단위의 지역자체방어를 기본으로 하는 진관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 요충지의 성 쌓기 작업에 백성들의 원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임란 직전에 경상도 관찰사 金曄의 주장에 의하여 진관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역에 전군이 집결한다음 최고군사지휘관의 지휘 하에 전투를 치르는 소위 제승방략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란 직후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군을 막기에는 제승방략체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왜군이 진격해오는 길목에 우리의 병력이 집결할 틈도 없이 군사들은 궤멸되어 뿔뿔이 흩어졌다. 제승방략을 주장한 경상도 관찰사 김수 또한 전투를 치르지도 못한 채 산속으로 피신하고 말았다.¹²⁾

대구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8일 만인 임진년 4월 21일에 읍성이 점령되었는데, 왜군의 북상 통로이자 점령후방군의 주둔지가 되었다. 왜군의 북상 경로는 크게 세 개의 노선을 거쳐 갔다. 제1로는 東路로서 동래-기장-울산-경주-영천-신령-군위-비안-용궁-문경-충주를 통하는 길이었고, 제2로는 中路로서 동래-양산-밀양-청도-대구-인동-선산-상주-문경-충주를 통하는 길이었으며, 제3로는 西路인데 동래-김해-창원-영산-창녕-현풍-성주-김산-영동-청주를 통하는 노선이었다. 동로와 중로는 주로 경상좌도를, 서로는 경상우도를 거치는 진격로였다. 이 중 대구부는 왜군의 제2로인 중로의 관통지역이었고, 우배선이 활동한 화원현은 제2로와 제3로에 모두 걸치는 요충지에 해당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가 4월 20일에 대구 인근의 금호에서 왜적의 북상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전세의 절대적 불리함을 깨닫고 八嶽지역(칠곡)으로 피신하였으며 이후 왜군

12) 이탁영 저, 김호응 역주, 『역주 정만록』, 의성군, 2002, 38쪽.

은 거침없이 대구읍성을 전령하였다. 이 당시 왜군은 밀양, 청도를 거쳐 주력군은 북상하고 대구지역에 일부 병력을 후방군으로 주둔시켰다. 그 이전에 대구부사 尹旻은 청도가 이미 함락되었다는 첩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함창현감을 지낸 유진장 박충후에게 대구읍성을 맡긴 채, 부민과 관군을 대동하여 八公山 桐華寺로 피신하였다.¹³⁾ 이로써 무주공산이 된 대구성은 적의 소굴로 변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을 후에 대구의병장이 된 서사원의 일기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구부사 윤현이 약 2,000여 명의 민·관군을 대동하고 팔공산 동화사에 피난하고 있는 사이에 팔공산의 정상 부근 응봉에서 내려다보니 4월 21일에 청도와 대구를 잇는 팔조령으로 왜군이 통과하여 대구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수성현의 파잠(오늘날의 파동)에 화염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서사원이 이 날 말을 타고 대구 읍성 서문 밖으로 가보았을 때는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성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였다.¹⁴⁾ 모두 피난을 떠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에 대구읍성이 화염에 싸이고 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이때 왜군 제1군의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는 소위 嶺南大路를 따라 청도와 대구의 경계인 팔조령을 넘어 가창과 파잠, 상동을 거쳐 대구읍성에 진주하였고 주둔군을 남긴 채 북상의 길을 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란 초기 당시 대구와 성주지역의 일본군 총지휘자는 경상도의 영주로 내정되어 있던 제7대장 모리 테루모토(毛利輝元)였다. 당시 왜군의 정확한 주둔 병력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대구와 청도·밀양의 주둔 병력이 1만~2만의 병력으로 추정되며 이 병력은 경상좌도 지역을 다스리면서 한양과 평양에 이르는 전선의 군수보급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왜군은 임진년 6월 중순 경에는 경상도 지역 대부분을 점령하여 치안을 장악하고 병참업무와 주둔

13) 박영호 역, 『국역 낙재선생일기』, 이회문화사, 2008, 19쪽.

14) 박영호 역, 『국역 낙재선생일기』, 이회문화사, 2008, 19쪽.

지 후방경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구와 성주는 왜군 제7군의 후방점령 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우배선의 의병이 진을 치고 있던 화원현은 대구와 고령, 성주를 연결하는 적의 배후에 위치한 요충지였다.

한편, 대구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의병 봉기가 인근의 청도나 자인¹⁵⁾에 비하여 늦어진 이유는 당시 팔공산에 피난한 대구부사 윤현이 약 2,000여 명의 軍官民을 대동하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군사운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임진년 8월 20일경 부사 윤현이 왜군의 대적을 경솔하게 공격했다가 약 700여 명의 아군 전사자를 낸 이후에는 아예 군사를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¹⁶⁾ 이런 상황에서 대구 유림의 대표자격인 서사원이 팔공산에서 함께 있던 부사 윤현에게 수차례에 걸쳐 병사를 움직여 왜군을 토벌할 것을 권유하면서도 독자적인 의병활동에 뛰어들지 못한 것은, 관군이나 수령과의 마찰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었다.¹⁷⁾

그러나 우배선의 경우는 이와 사정이 달랐다. 당시 화원현에는 현감이 직접 파견되어 있지 않았고 성주 본읍의 목사로부터 지휘를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우배선 의병은 수령이나 관군의 간섭을 덜 받으며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원현은 대구의 서남단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성주, 고령, 현풍과 경계를 접하는 요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 지역에서 의병활동은 사실상 대구부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이 무

15) 청도의 朴慶傳이나 자인의 李承曾은 임진년 5월 초에 이미 봉기하여 대구 유림의 대표격인 서사원에게 함께 창의할 것을 통고한 바 있었다. 박영호 역, 『국역 낙재선생일기』, 이회문화사, 2008, 19쪽을 참조.

16) 『학봉속집』 권3, 「우감사시 장계」 참조. 이때 대구의 관군이 제1차 경주성 탈환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17) 이 점에 대하여 우인수는 대구부 전체의병의 조직을 관군과 의병의 협의를 통한 연합활동으로 보기도 하였다(우인수, 「『낙재일기』를 통해본 대구지역 임진왜란 의병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123, 2016, 2쪽).

렵 경상우도 성주에는 이미 일본군의 상당수가 주둔하여 약탈과 방화 등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었으나 郭再祐, 金沔, 鄭仁弘 등 경상우도의 3대 의병장들이 치열한 대응으로 왜군을 몰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을 보전할 수 있었다. 우배선이 봉기한 화원현의 경우, 이와 같은 경상우도 의병들의 낙동강 장악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다. 화원현은 지역적으로는 왜군의 출몰이 잦아 의병봉기를 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낙동강을 따라 이동하는 왜군을 유인하여 유격전을 펼치기에 유리한 地理的 利點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 창의의 배경

우배선의 가계는 『丹陽禹氏判書公派譜』에 의하면, 고려시대의 禹玄을 파조로 하여 우현-우신-우인가-우영순-우경절-우중대-우천규-우탁-우길생-우현보까지가 고려조의 현달한 조상들이며, 조선조에 들어와 우홍명-우홍륜-우전-우계강-우봉-우성덕-우배선으로 이어진다. 그의 가계는 고려 후기 성균관재주를 지낸 역동 禹倬의 시기에 번성하였으며 고려말 문하시중을 지냈던 禹玄寶 시기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현보의 손자 禹成範이 공양왕의 부마가 되면서 조선 개국의 주역인 정도전 등으로부터 정몽주의 일파로 몰려 참수되었고, 우성범의 아들 우홍명 등 3형제도 유배지에서 척살되었다. 그 후손들은 각지로 흩어지면서 우홍명의 아들 홍륜이 처가인 문화유씨의 세거지 경상도 성주지역에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우홍륜의 아들 우전(禹贊)은 정략장군으로 예빈시 주부를 지냈으며 화원현 월촌(곡)에 정착하니 우배선의 고조였다. 우배선의 증조 우계강은 장연현감을 지냈고, 조부 우봉은 함평현감이었으며, 부 우성덕은 일찍 사망하였다. 어머니 아산장씨는 장대신의 딸이며 영릉참봉 장희운의 손녀였다. 우배선의 조부 3형제는 우봉이 현감, 우봉도 무과출신의 현감, 우린은 내

금위로서 각기 수령과 군직을 역임하면서 화원 월촌을 중심으로 인근 군현의 사족인 서흥김씨, 오천정씨, 달성배씨, 고성이씨, 아산장씨 등과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처럼 우배선의 조상들은 현감, 내금위 등의 벼슬을 이어가면서 대구의 화원¹⁸⁾ 등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다.¹⁹⁾ 우배선의 전처는 세종조에 좌의정을 지낸 용헌 이원의 5대손 이탕의 딸이며 후처는 한훤당 김굉필의 증손 참봉 수열의 딸이었다. 이 같이 우배선의 가문은 조선 개국 후 약 200년을 지나면서 조상들이 지방수령을 지내는 등 경상도 화원지역의 사족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임진왜란을 맞았다. 그의 고조 우전부터는 무반적 기반을 가졌고 우배선 또한 武人的 기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배선이 창의하게 된 사상적 기반을 살펴보면, 그가 살았던 화원현은 임란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우도 성주목 소속이었으나, 학연이나 생활권으로 볼 때 대구권 유림의 성리학적 학풍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유림의 성리학적 학풍의 진작은 먼저 대구 최초의 서원인 연경서원의 설립과 관련이 있는데, 연경서원은 농암 李賢輔의 아들이자 퇴계 李滉의 제자인 梅庵 李叔樛²⁰⁾이 설립을 제안하고, 퇴계의 문하에서

18) 우배선이 태어난 화원현 월촌은 낙동강을 끼고 대구와 성주, 고령 등과 접한 대구부의 서쪽 끝 지점이다. 임란 당시에는 이 지역이 성주목 소속이었으나 숙종조(1685) 이후 대구부로 편입되었다. 오늘날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으로서 흔히 대구지역에서는 '월배(月背)'라고 부른다. 행정구역상으로 볼 때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다 같이 낙동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당시 '하빈현'은 대구부의 속현으로 되어 있었고, '화원현'은 오히려 경상우도인 성주목 소속으로 행정구역이 정해진 점이 특이하다.

19) 우배선의 가계에 대하여는 박선정, 「월곡 우배선과 덕동 및 낙동서원」,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우배선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94~95쪽을 재인용하였다.

20) 이숙량은 본래 안동 예안 출신이었으나 이 무렵 그의 만행의 처가가 대구 연경지역에 살았기에 대구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같은 퇴계의 문인인 대구 출신의 전경창과 깊은 우의를 나누는 사이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수학한 溪東 全慶昌²¹⁾이 주도하여 대구 유림이 참여하여 설립이 되었다. 퇴계 또한 연경서원의 건립에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²²⁾ 이 후 퇴계와 남명의 양문을 드나들며 예학에 조예가 깊었던 寒岡 鄭逵²³⁾가 대구의 문풍을 크게 일으켜, 대구의 학풍은 퇴계와 남명의 사상을 동시에 수용하는 유학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즉 대구 유학은 전경창을 비롯하여 대구 유학의 제1세대로 불리는 채응린, 정사철, 서형, 서식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나갔으며 전경창의 후학인 徐思遠과 孫處訥, 郭再謙, 鄭光天, 李胄 등이 그 뒤를 이어나갔다. 이들의 공통적 특징으로는 한훤당 金宏弼의 정신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아 小學을 중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대구 유학은 退溪가 강조한 일상에서의 敬工夫와 南冥의 현실에서의 實踐重視 사상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임란초기 대구 의병대장에 추대된 徐思遠(1550~1615)은 유학의 의리사상에 근거하여 대구지역의 사족들에게 의병활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창의를 호소하는 檄文에서 “다시는 조금도 마음을 속이지 말고 조금도 임금을 속이지 말라”며 忠義를 의병봉기의 명분으로 내세웠다.²⁴⁾ 임란 당시 대구 유학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서사원과 손처눌은 의병활동의 성패의 관건은 장수, 계략, 군량, 군기와 같은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忠義와 道德心의 유·무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²⁵⁾

21) 전경창은 이숙량과 함께 퇴계의 문하에서 유학을 배웠고 대구에 유학의 터전을 닦은 대구 유학의 선구자적 인물로 평가된다.

22) 퇴계는 연경서원 설립 이후 後記로 기문을 지어주고 서원 10영(詠)을 지었다. 그 속에 연경서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퇴계가 연경서원의 설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3) 이후 성주 출신의 한강 鄭逵는 대구부사를 역임하면서 서사원, 손처눌 등의 대구 출신 유학자들과 더불어 대구의 성리학적 학풍을 더욱 진작시켰다.

24) 강문구 역, 「항병을 초집하는 통문」, 『국역 낙재선생문집4』, 이회문화사, 2008, 237~247쪽.

25) 권상우, 「대구권 성리학과 의병활동」, 『대구지역임진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

우배선은 바로 서사원의 제자였다. 그는 24세의 서생으로 비록 증견 유림은 아니었으나 이 같은 대구유학의 정신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²⁶⁾ 우배선이 창 의 당시 “우리 집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은 가문으로 비록 지금 관직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어찌 신민으로서 적을 토벌할 義理를 잊겠는가”²⁷⁾라고 하였다.

우배선은 스승 서사원과의 친분이 특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²⁸⁾ 서사원의 『국역 낙재선생문집』 4권에는 서사원의 강학활동과 문인록을 실었는데, 문인록에는 우배선에 대하여 “자는 사성(師聖), 호는 월곡(月谷), 관력은 郡守, 덕동서원 배향”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⁹⁾ 그리고 우배선의 큰 아들 우달해³⁰⁾ 또한 서사원의 문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우배선은 서사원보다 19세 연하로서 서사원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부터 돈독한 사제관계를 맺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배선은 단양우씨 종손가의 嗣孫으로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소년기를 본가인 화원을 떠나 외가인 淸道の 재지사족 牙山蔣氏의 집성촌인 사인촌³¹⁾에서 보내다가 17세에 화원현 월곡 본가로 돌아왔다. 그러므

양희, 2017. 저자는 이 논문에서 대구권 유림의 성리학적 학풍의 정착과 발전에 관하여 상세하게 밝히면서, 임란시 대구권 의병활동의 사상적 기반이 대구 유림의 충의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대구권 의병의 성격을 오륜의 君臣有義 정신의 발로로 보고 근왕적 창 의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구 유림이 임란 이후 폐허가 된 대구지역을 증진하는데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대구권 유학(성리학)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6)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156쪽.

27) 앞의 책, 146쪽.

28) 앞의 책, 156쪽.

29) 강문구 역, 『국역 낙재선생문집4』, 이회문화사, 2008, 28~29쪽.

30) 우달해는 임란기 자인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던 최문병의 손녀(차남 경지의 큰 딸)에게 장가들어 의병 가문간의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영천최씨대동보』 2권 1쪽.

31) 오늘날 청도군 각남면 구곡리이다. 우배선의 외가인 이곳은 아산장씨가 대대로

로 17세 이전에는 외가의 가학을 일정부분 이어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가 서사원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일 것으로 여겨진다. 서사원의 임란일기인 『낙재일기』³²⁾에는 우배선에 대한 기사가 무려 9회나 보이는데, 우배선은 주로 서사원의 친족이나 제자들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계사년(1593) 10월 14일, “아침밥을 먹은 후에 우배선이 당청(무) 20뿌리와 전초(식초) 1되, 통조 1말을 보내 구원하였으니, 親厚한 뜻을 생각할 수 있었다.”, 같은 달 19일, “날이 추웠다. 항아(서사원의 아들)가 우합천³³⁾의 집으로 갔는데 葬事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달 19일, “새벽에 땀이 났다가 그쳤다. 우합천이 붕어 10여 마리와 식초, 겨자 씨앗을 얻어서 방문하였다.”, 12월 2일, “아침에 도자검이 내방하여 우합천과 함께 婚事を 문답하러 갔다.”, 같은 달 20일, “합천 우배선이 술병과 과일을 가지고 내방하였는데, 그가 再娶를 얻은 후였기 때문이었다.”

을미년(1595) 7월 25일, “여명에 지방으로 기제를 지냈다. 형님은 합창의 집으로 향하였고, 서사선³⁴⁾은 우배선의 집으로 출발하였으며, 항아는 읍내로 돌아왔다.” 같은 달 26일, “아침에 서사선과 박희인 등이 합천 우배선의 집에서 돌아왔는데, 우배선은 裁賀³⁵⁾하고 먼저 卜馬 한 필을 주었으며 바로 찾아와 보겠다고 하였으니 親密한 義理가 남달랐다.”, 같은 달 28일, “우배선이 또 찾아

재지사족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32) 강문구 역, 『국역 낙재선생문집4』, 이회문화사, 2008, 424~512쪽.

33) 우배선이 군공으로 陝川郡守에 제수된 바 있으므로 그렇게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34) 徐思選은 서사원의 4촌 동생이며, 호는 東阜이다.

35) 여기서는 서사원의 청안현감직 제수에 대한 축하의 글을 지은 것을 말한다. 이때는 서사원이 청안현감을 제수받고 부임하기 전으로 보인다.

와 餞別³⁶⁾을 행하였는데, 은어 20마리를 선물로 주었다.”

등의 기록이 보인다.

위 서사원의 일기를 통해 두 사람의 情理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배선이 서사원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약재를 직접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서사원이 우배선의 喪事에 아들을 보내 조문하기도 하였다. 종제인 서사선을 우배선의 집에 보내 집안 일을 상의하고, 혼사 문제로 서로 의논하기도 하였으며 우배선이 서사원에게 말 1필을 선물하는 등 마치 가까운 사제관계나 친인척처럼 정을 나누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만큼 서사원은 우배선을 신뢰하였고 우배선 또한 스승 서사원을 존경하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을 볼 때, 우배선은 서사원으로부터 대구 유학의 충의 정신을 체득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록 우배선이 창 의 당시 관직이 없는 24세의 백면서생이었다고는 하나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단순히 향리에서 가문이나 지키던 평범한 존재는 아니었던 듯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배선의 임란창의의 사상적 기반은 서사원을 비롯한 대구 유림의 충의정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⁷⁾

3. 의병의 조직

우배선 의병진의 조직은 강력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긴밀한 학문적

36) 이 무렵(1595년 7월) 우배선도 관직을 제수받았고, 부임인사차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서사원에게 전별 인사를 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37) 퇴계의 생전에 대구에 연경서원이 설립되었고 이 후 대구 유림은 꾸준한 성장을 하였으나 임란 당시까지 안동 등 여타의 영남지역에 비하여 그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으며, 대구 유림이 특별히 충의정신이 더 높았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다만 우배선이 창 의 당시 대구 유림을 이끌었던 서사원으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았던 사실은 주목할 점이라 생각된다.

우대 등을 창의 배경으로 하지 못했다. 영남우도의 3대 의병장인 郭再祐, 金沔, 鄭仁弘 등에 비하면 나이, 신분, 재지적 기반, 학연 등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우배선은 창의 당시 가노와 친인척을 비롯한 동민들을 중심으로 겨우 50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였으며, 이때 동민들은 우배선의 창의에 대하여 그 가능성을 반신반의 하였다. 그것은 우배선이 마을 주민들을 의병 구성원으로 포섭하려 했을 때 “저 사람이 멀쩡한 동민들을 왜적의 손에 다 죽게 만든다”³⁸⁾라고 불신하는 말이 나돌았을 정도로 그의 거병 행위에 대해 신뢰를 보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우배선이 여타의 의병장들처럼 그 지방을 통솔할 만큼 나이가 든 전직관료 출신도 아니었고 그에게 그들의 목숨을 책임질 정도의 영향력이나 경륜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배선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비슬산과 낙동강변에 위치한 향리에서부터 전투를 시작하여 인근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야간 매복이나 기습의 방법으로 적을 베고 적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인작전으로 유격전을 펼치며 대구지역의 왜적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전과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인식은 달라졌다. 게다가 우배선 의병은 임란초기 피난길에 우왕좌왕하며 헐벗고 굶주리던 주민들을 불러 모아 구휼정책을 폈다.³⁹⁾ 이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차츰 우배선의 의병진에 들어감으로써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배선 의병의 조직은 100명 내외의 소규모 의병부대였지만 그 구성원은 매우 다양했다. 그의 『창의유록』에 실린 「성주화원의병군공책」⁴⁰⁾에 나타난 의병대원을 역할별로 보면, 定虜衛였던 도연수가 있고, 別侍衛였던 김압희 등 11명의 정예요원, 송학년 등 34명의 대원, 석백 등 2인의 記官(鄕吏), 김명원 등 水軍 21명, 中軍(정3품 군관) 출신의 송호림, 진오을미 등

38)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147쪽.

39) 앞의 책, 96쪽.

40) 앞의 책 중 영인본 36~46쪽.

保人 6명, 기총 등 私奴 10명, 그 외 寺奴 백천수, 官奴 충수 등이었다.⁴¹⁾ 이들은 우배선의 지휘·통솔 하에 伍將, 隊長과 같은 분대·소대장급의 중간 간부가 있고, 弓人·矢人·冶匠과 같은 무기제조자, 射手·槍手·砲手와 같은 저격요원, 기타 軍需 조달자들로 편성되었다. 전문분야별로 보면 騎兵과 歩兵이 있으며, 특히 비슬산과 최정산을 무대로 전개한 산악전에는 山尺⁴²⁾이 동원되고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접전하는 수상전에는 格軍이나 沙工의 역할도 컸다.⁴³⁾ 24세의 젊은 우배선이 소수정예의 의병부대로 다수의 적을 격파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가 사재를 털어 의병을 모집하면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대원들을 불러 모았고, 전란으로 흩어진 주민들에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 정성껏 구휼하고 보살핌을 계속하며 동고동락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절대적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다.⁴⁴⁾ 모여든 사람들을 크게 3부류로 구분하여 비슬산 산속에 진지를 구축하여 그곳에서 軍器를 제조하였다. 향리의 기술자들 중 활 만드는 사람, 화살과 화살 축 만드는 기술자 및 야철장을 직접 관리하여 군수품을 비축하고 궁수와 창군을 전투요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대원들을 따뜻한 가슴으로 포용한 우배선의 인품과 전투준비를 위한 철저한 임전태도에 대하여는 화원현의 문사인 김엽(金曄)⁴⁵⁾이 초유사 김성일에게 올린 서신에도 나타나고 있

41) 앞의 책, 194~204쪽.

42) 산속에 살면서 사냥과 약초채집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심마니, 산쟁이 등으로 불린 이들은 전시에 유격전의 첨병으로서 큰 기여를 해왔다.

43)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1992, 90쪽.

44) 우배선이 굶주리고 헐벗은 향리의 피난민들을 구휼하는 모습은 정경운의 『고대일록』과 명군 여응종의 『조선기』에도 이러한 상황이 엿보인다.

45) 정경운의 『고대일록』 권2, 을미년(1595) 2월 9일조. “고령의 양전원에서 아침을 먹은 후 무계진을 건넜고, 날이 저물어 화원현에 들러 친구 土人 金曄의 집에서 잤다.”, 같은 달 13일조에 “하양, 경산, 대구지역을 지나 화원 김엽의 집에서 잤다. 김군은 출타하고 없었기에 서로 보지 못했다”는 기록을 통해 김엽은 당시 화원현의 대표적 중견 사족으로 짐작된다.

다. 우배선의 창의를 결국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마을 주민과 회원현 현내의 향리, 일부 관군, 사천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뭉친 결과 강한 전투단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⁶⁾

우배선의 의병조직은 마치 오늘날의 특수부대를 연상할 정도로 전문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따로 別將을 두어 휘하의 소조직을 통솔케 하고 있는데 이들 별장은 주로 정로위, 별시위, 정병 등 전문적 무관 출신들이 담당함으로써 군사력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⁴⁷⁾ 또한 임진왜란 당시 의병진에서 직접 冶匠을 운영하는 것은 임란초기 경상우도의 의병을 지휘했던 정인홍, 곽재우, 김면 등의 대규모 병력을 운용했던 의병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우배선 의병과 같은 소규모 병력이 직접 무기를 제조하여 군사운용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밖에 회원현이 낙동강을 끼고 있었기에 낙동강을 터전으로 어업에 종사하던 뱃사공 등이 수군 요원으로 의병에 포섭되어 낙동강 중심의 왜군의 이동을 저지하는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들 향민들의 협조와 노력에 의하여 군수물자나 무기의 공급이 가능하였고 또한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에게는 군사들이 입을 의복이나 생필품을 준비하도록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요컨대 그가 이끌던 의병은 그 규모가 100명 전후의 소규모였음에도 부대원들 대부분이 유격전을 치르기에 충분할 정도로 잘 훈련된 조직을 갖추었고, 전투지역이 경상좌도인 대구와 경상우도인 고령·성주의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낙동강과 금호강을 낀 경상좌·우도를 연결하는 특수한 지역에서 중첩적으로 활동한 점 등의 특이함을 지니고 있다.

46)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316~318쪽.

47)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1992, 88~89쪽.

48)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262쪽.

III. 의병활동의 전개

1. 의병활동의 展開過程

우배선은 의병대원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선봉에 나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였다. 게릴라전 중심의 용병술로 특수부대를 운용하려면 적어도 최고 지휘자 자신이 상당한 병법을 터득하지 않고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직접 적과 싸워 다수의 적의 목을 베는 전과⁴⁹⁾를 올렸으며 전투현장에서 용전분투하였다는 점에서 학식과 인품으로 의병장이 된 문사 출신 의병장과는 그 성격이 달랐다. 그는 실전형 의병장이었으며 넓은 도량을 가지고 있었다. 장유유서가 엄하였던 시기에 부하 대원중 宋鶴年 같이 60세가 넘는 노인 대원도 있었던 만큼 포용력과 통솔력을 갖지 않고는 휘하 병력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배선 부대가 소수의 병력이었음에도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학의 실천원리인 충의에 입각하여 창의하였으며, 엄격한 군율의 시행⁵⁰⁾, 부하직원들의 軍功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대원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하는 率先垂範의 자세를 보인 결과라 하겠다.

49) 「성주화원의의병군공책」 첫 장, 이 군공책에 의하면 대장인 우배선의 전공은 임진년 10월 5일부터 그 해 12월 18일까지 적 참살 9명, 사살 26명, 작살 11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50) 우배선은 휘하 대원들에게 민폐를 금하고 군량 및 군수품 관리에 엄한 군율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원들이 군량부족으로 곤경에 처했을 때도 화원창의 곡식을 함부로 사용한 일이 없었으며, 자신의 가족들의 의류를 팔고 가솔들에게 밥값 없이 길삼을 시켜 얻은 細木 60필을 전라도 남원등지에 가져가 쌀로 바꾸어 군량에 충당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병대원 都彥守 등 48명이 연명으로 경상우도 순찰사에게 군량지원 청원서를 올리기도 했다. 계사년 정월 所志(95cm × 42cm) 참조.

우배선은 비록 출사한 신분은 아니었으나 유학의 충의정신을 체득하였고⁵¹⁾ 그의 무예는 의병조직 구성을 완료한 이후 본격적으로 향리에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음에도⁵²⁾, 전과가 괄목할만한 것은 그가 국토를 보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서사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나 무기보다도 충의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화원현 유생 金擘이 초유사 김성일에게 올린 서장을 통해,

“지난 날 왜구가 달성의 남쪽에 진을 치고 모여 있었는데, 禹某(우배선)는 남산의 넓은 언덕 위에 활을 당기고 칼을 휘두르며 말을 치달려 재빠르기가 마치 매와 같아서 적의 보루에 충돌하니 여러 왜구들이 두렵고 놀라서 성벽을 비우고 … 왜적들은 서로 돌아보며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왜적들이 그가 있는 곳을 알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으니 그 무용이 옛적의 관우, 장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왜적들에게서 탈환한 牛馬, 器皿 등의 물건을 공의 많고 적음을 논하여 상으로 내림이 분명하였고, 전투에서 이기고 공격하여 취한 노고는 모두 병졸들에게 돌리고 자기의 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그 누구인들 그 순수한 충성심에 감복하지 않겠으며 무릇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인들 죽음을 바칠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 이 같은

51)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 대구의 유학자인 낙재 서사원으로부터 학문을 배운 것으로 보인다. 서사원의 문집 중 사우록에는 우배선이 서사원의 제자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우배선이 관료생활을 하면서 청안현감으로 부임한 서사원과 인간적 유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찾아가 배움을 청하였다는 기록이 서사원의 낙재문집에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우배선은 성장기에 청도의 외가에서 자라기는 하였으나 입란 창의 당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유생으로 보아도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52) 『月谷實記』 권2 ‘儒生金擘等上招諭使書’, 김엽 등이 초유사 김성일에게 올린 상서장 참조.

사람은 실로 보기 드문 바입니다”⁵³⁾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진년 8월경에 이르면 대구의 재지사족 서사원이 팔공산에 피신해 있던 대구부사 윤현과 관군의 협조를 얻어 수성현과 하빈현 등 속현의 사족인 손처늘, 정이안, 도흥중, 최동보, 최인, 최계 등과 연계하여 대구부 전체의 의병진을 구성하게 된다.⁵⁴⁾ 이 시기에는 경상도 招諭使 金誠一이 관할 지역의 義兵將을 지명함에 있어 단지 문필과 덕망 위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實戰 중심의 병법과 武藝에 능한 전직 武官출신들 중심으로 교체하여 전투력을 높일 것을 주문하는 시점이기도 하다.⁵⁵⁾ 따라서 우배선의 의병 부대에도 무예에 뛰어난 前職 武官이나 官軍의 散卒 등 精銳兵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의 『星州花園義兵軍功冊』을 통해보면, 휘하에 정로위 1명, 별시위 11명, 정병 34명, 수군 21명, 중군 1명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중요한 유격전에 투입하였던 埋伏이나 夜斫의 작전 병력들은 전투경험이 풍부하고 무예에 능한 이들 정예병 군사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우배선은 임진년 9월경 화원현 지역을 순시하던 초유사 김성일을 만나 화원현 假將으로 임명되면서부터 그의 의병 구성원이 전문화되고 병력의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더욱 적극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것 같다. 또한 이러한 의병조직의 체계화는 흩어졌던 관군이 재정비되면서 의병과 관군이 연합을 시도하던 시기와의 관계가 있다. 그 해 10월에는

53) 『月谷實記』 권2 ‘儒生金曄等上招諭使書’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장의기념사업회, 1994, 316~318쪽에서 재인용. 원 사료(32cm×22cm)는 일괄 유물로 지정되어 현재 대구 상인동 소재 월곡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54) 그러나 이 시기까지 대구부의 각 의병들과 우배선 의병과의 연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55) 『학봉속집』 권3, 좌감사시장(임진년) 참조.

경상우도병마사 鄭起龍 휘하의 都體察府 營將인 진주 출신 姜德龍⁵⁶⁾이 성주목 팔거현과 대구부 하빈현에 걸쳐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왜군과의 대접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우배선은 강덕룡의 관군과 연합작전을 펴면서 화원현의 조암, 감물천에서 적과 접전하고, 이어서 고령, 합천 삼가에까지 추격전을 벌여 상당한 전과를 올린다.⁵⁷⁾ 그리고 우배선이 같은 달 의병 60여 명을 거느리고 심천사, 달천 등지에서 적과 접전하고, 騎兵을 거느리고 하빈현, 마천현, 이천 뒷산, 대구의 북면·서면으로 나가 전투를 벌였으며 이때 다수의 아군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는 전투에 임해서는 자신이 사졸들보다 앞장서서 나아갔고 위험을 피하지 않았으며, 전공을 논하여 보고할 때는 대원들에게 공을 돌렸다.⁵⁸⁾ 그가 계사년(1593) 2월에 조모상을 당하여 군병과 무기를 휘하의 별장들에게 맡기고 여막을 지키게 되면서 그를 따르던 사졸들이 모두 흩어져 자칫 그의 의병진이 해산의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초유사 김성일, 의병장 김면, 곽재우 등으로부터 군무복귀 권유를 받고 다시 의병진을 정비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것에서 그의 통솔력이 드러난다.⁵⁹⁾ 우배선의 인물됨은 강직하면서도 도량이 넓어 막료보다는 首將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이웃 고을 현풍 의병장 곽재우가 우배선 의병진이 있는 화원현으로 전투하러 왔을 때 우배선 부대와 상호 협력한 적이 있었다. 곽재우의 막하 장수가 곽재우에게 우배선을 手下로 기용할 것을 권유하자, 곽재우는 우배선을 일러 “禹師聖(사성은 우배선의 字)은 비록 나이는 젊고 지위는 낮으나 그 재주와 기량이 남의

56)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97쪽, 148쪽. 강덕룡은 1차 진주성전투의 守城部隊의 관군으로 참여하였으며, 함창현감을 지낸 것으로 나타난다.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1, 168쪽 참조.

57) 앞의 책, 258~259쪽.

58) 앞의 책, 308~310쪽.

59) 앞의 책, 264~265쪽.

막료로 들어가 지휘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배선에게 전포(전투복) 한 벌을 선물로 주었다.⁶⁰⁾ 이런 면에서 우배선은 자질적으로 남의 휘하 참모역할 보다는 다수를 통솔할만한 우두머리의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598년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명군 4,000명을 거느리고 합천 해인사에 주둔하여 이 지역의 의병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배선의 나이를 묻고는 “참으로 大將감이로다. 작은 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⁶¹⁾라고 감탄하며 玉鷲를 선물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우배선은 용맹과 지략, 덕성을 모두 갖춘 지휘자로 보인다. 임진년 9월, 우배선이 초유사 김성일을 만났을 때, 김성일은 우배선에게 “내가 호서와 호남, 영남을 많이 다녀도 그대(假將)와 같은 奇才와 뛰어난 戰略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조정에 보고하기를 “화원의병장 우배선은 백면서생으로 함락한 속에서 분기하여 自費로 군량과 군기를 마련하여 여러 번 토적하였으니 특별히 褒賞 하소서”라는 장계를 올린 바 있다.⁶²⁾

2. 地形地勢의 이용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는 대구와 성주지역은 적군과 아군 모두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중요한 곳이었다. 우배선이 의병진열을 정예화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예에 능한 관군을 편입하면서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임란초기에 도주하거나 흩어졌던 관군들이 인근 경상도 재지사족들이 조직한 의병진에 편입되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⁶³⁾ 우배선 의병진은 탄탄한 군사조직력을 기반으로 하였기

60) 앞의 책, 263쪽.

61) 앞의 책, 152쪽, 270쪽.

62) 『창의유록』 중 「초유사 학봉 김선생 계문초」,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308쪽.

때문에 정예부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의병진은 낙동강과 비슬산의 지리적 조건을 이용한 유격전을 펼침으로써 임란초기의 무주공산이 된 대구지역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임란초기 왜군의 전방에 대한 보급품 조달은, 본래 왜군의 전라도 침공의 선봉인 승려 다이묘 안코쿠지 에케이(安國寺 惠瓊)가 낙동강과 남강을 통과하여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점령하고 한양이북으로 군수물자를 수송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곽재우 등 우도의병장들의 강력한 방어전략으로 낙동강 지류인 의령의 남강 정암진에서부터 좌절되었다. 낙동강 본류를 따라 경상좌도로 오는 길목인 창녕, 고령지역의 江岸은 임진년 6월 6일, 곽재우 등 연합의병진이 고령-현풍의 茂溪戰鬪에서 승리하여 낙동강 중하류를 장악함으로써 개령현에 주둔하던 제7대장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의 부장 무라카미 가게시카(村上景親)가 의도한 낙동강 연안의 도선장 확보 계획을 무산시켰다.⁶⁴⁾ 따라서 왜군의 진로는 낙동강과 남강에서부터 막히게 되었고 전라도지역의 곡창 약탈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우배선 의병의 전투지역의 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임란 당시 화원현은 대구 중심지역에서는 약 30여리 떨어진 서남부에 위치하여 서쪽으로는 고령과 성주, 남쪽으로는 현풍과 창녕, 동쪽으로는 대구 수성현 및 청도군과 인접한 곳이다.

이곳의 지형은 600~1,000미터 정도의 대덕산, 비슬산, 최정산 등 여러 개의 산이 겹겹이 휘둘러 있고 낙동강, 금호강 및 그 지류를 끼고 있는 곳으로, 많은 왜군이 집결해 있던 경상우도의 성주와 경상좌도 대구부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지형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따라서 대구부와 청도군에 주둔한 왜군은 수시로 이곳을 수색·정찰하면서 보급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화원현 일대는 낙동강의 현풍현·고령현과 대구의

63)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2, 84~88쪽.

64) 이형석, 『임진전란사』 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4, 324~327쪽.

하빈현 사이의 낙동강 수로를 끼고 있는 곳으로서 곽재우 등 경상우도의 병진이 대승을 거둔 낙동강 무계진의 위쪽에 위치해 있었다. 지형적으로 비슬산과 낙동강을 끼고 있어 유격전을 펼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화원현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달천, 감물천 등의 소하천과 들판, 초지와 갈대밭이 어우러져 있어서 이곳 지리에 익숙한 의병들이서는 적을 유인하거나 매복으로 기습작전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지형이었다. 『월곡실기』에서 임란초기에 화원현 조암들판에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포획하여 길들인 후 전투용 기마로 사용하였다⁶⁵⁾는 사실로 보아 화원현의 城山(상화대) 아래의 조암방과 감물천방 지역(오늘날의 성서공단이 들어선 지역)은 금호강과 낙동강을 낀 들판과 초원지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줄기의 강물이 가운데에 습지(섬)를 두고 화원동산의 성산 절벽 하식에서 만나 하나의 낙동강으로 합류한다. 우배선의 주요 활동지역이 낙동강과 금호강을 끼고 있는 갈대가 무성한 늪지대가 많았으므로 주둔지의 관내를 약탈하려 나온 왜군은 우배선의 병력이 매복한 강가의 늪지대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이다.⁶⁶⁾ 낙동강과 감물천, 금호강 주위의 늪지대에서 벌인 우배선 의병의 기습작전은 지리에 어두운 왜군들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했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왜군이 후퇴하면 적을 쫓아 후미를 공격하는 전술을 펼쳤다. 이러한 전술은 전형적인 게릴라 전법이다. 셋강인 금호강과 감물천의 합류지점에도 대부분이 갈대밭이나 습지로 지형이 형성되어 있었다.⁶⁷⁾ 우배선 의병진이 매복으로 적을 기습한 곳은 바로 낙동강 지류인 감물천이 낙동강과 접하는 열은 개울이었으므로 풀숲이

65)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256쪽.

66) 앞의 책, 257, 259쪽 참조. 우배선의 매복 작전은 미리 산기슭이나 강가에 정예병을 숨겨두고, 늪과 병든 사람들로 하여금 적을 유인케 하여 매복지로 끌어들이기 습을 가하는 전술을 쓴 것으로 보인다.

67) 오늘날에는 '달성습지'로 지정되어 생태관을 설치하고 환경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림 1〉 여지도(고4709-68) 대구부(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자료)

나 습지에 매복하였다가 강변을 따라 약탈하러 나온 적병을 추격하거나 기습으로 수십 명을 참살하였으며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유격전을 펼쳐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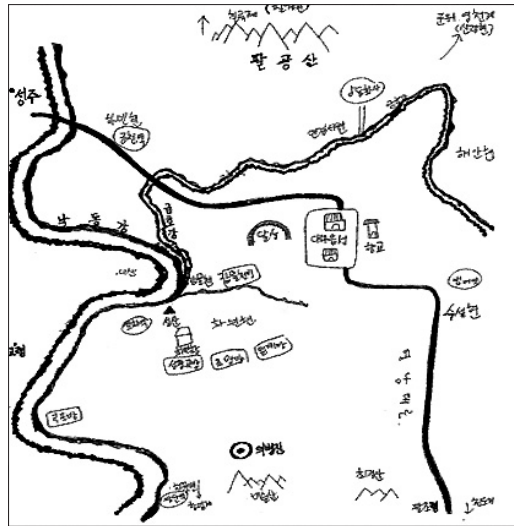
이 당시 대구부와 인접한 경상좌·우도 지역의 지형과 의병의 포진 상황을

보면, 낙동강을 기준으로 우배선 의병진이 활동하던 화원현의 남쪽 지역으로는 곽재우 의병진⁶⁸⁾이 장악한 현풍현이 위치하였고, 낙동강 중류 지점인 하원현의 낙동강 건너편 지역은 김면 의병진이 점거한 고령현이 있었으며, 대구부의 북쪽 팔거현⁶⁹⁾ 지역은 정인홍의 성주·합천 의병진이 활동하고 있었다. 화원현 지역은 청도-대구-성주를 잇는 육로의 배후지역이었고, 무계-화원-왜관의 낙동강 수로의 중간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우배선 의병의 활동 지역은 대구부의 왜군 진영을 위협할 수 있는 지리적 요충지였으며 대구부를 위시한 경상좌·우도의 아군 병력이 연합하여 전투를 치

68)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대구권역의 의병운동과 변화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임진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146~149쪽.

69) 오늘날의 대구 칠곡지역으로서 임란 당시에는 경상우도 성주목의 속현이었다. 이곳은 대구부 官民軍이 응거해 있던 팔공산의 북서쪽 끝자락이어서 지리적으로 대구부 방어에 중요한 요충지였다.

르기에 요긴한 지역이었다. 임란초기에 대구부가 적에게 점령된 상황에서 임진년 9월경 초유사 김성일과 경상우병사 정기룡의 병력이 팔거현에 모여 우배선 의병진에게 연합전선에 참여할 것을 요청⁷⁰⁾ 하였다. 대구부의 방어를 위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논의한 것이다. 우배선 의병의 활동지역인 화원현은 낙동강을 끼고 대구부와 직접 경계를 접하고 있어서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대구부 방어의 기능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⁷¹⁾ 즉, 화원현은 대구에 주둔한 왜군의 진영을 교란시키기에는 매우 적절하고도 중요한 지점이었다. 우배선 의병진은 화원현의 지형과 지세를 이용하여 왜군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전투를 전개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대구읍성에 진치고 있던 왜군 주둔군이 팔공산 지역의 대구부 피난민과 관군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것은 화원현에 진치고 있던 우배선 의병이 낙동강 중류와 금호강 하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군은 수로를 이용할 수 없었고, 우배선 의병으



〈그림 2〉 대구부 요약도

70)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32쪽.
 71) 임란 이후 대구부가 군사적 요충지임을 인식한 조정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구부를 경상도의 감영으로 정하였고, 1685년 숙종 연간에 화원현은 대구부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로부터 배후 기습을 받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배선 의병의 낙동강과 비슬산을 이용한 유격전은 대구부 방어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3. 遊擊戰의 전개

『창의유록』과 『월곡실기』에 의하면, 우배선 의병진은 향리인 화원현의 비슬산 자락에 진영을 두고 화원현을 비롯한 대구본읍과 낙동강, 금호강 가를 오르내리면서 유격전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배선이 이끄는 의병부대의 전투방식은 기본적으로 유격전인데 그의 「성주화원의병군공책」을 중심으로 파악해보면,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이들이 전개한 유격전의 방식은 첫째, 設伏이다. 즉 요충지에 정예병들을 매복시키고 적을 유인하거나 또는 적이 이동하는 도중에 급습하는 것이다. 매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동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⁷²⁾를 입수하는 것이다. 이들은 유인한 적의 후미를 공격하기도 하고 대열의 중간허리를 급습하기도 하였다. 우배선 부대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화원현 출신으로서 이 지역의 비슬산 자락이나 낙동강, 금호강 일대의 지형지세에 매우 밝기 때문에 왜군이 움직이는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해 두었다가 왜군의 출몰지 등에서 기습을 가하였다. 둘째, 夜斫으로서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적에게 기습을 가하는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은 화원현을 감아 흐르는 낙동강변의 갈대밭이나 초지지역을 이용한 기습작전으로 침병이나 매복병으로부터 적의 위치를 전달받고 숨어서 적을 베거나 화살로 쏘아 죽이는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은 적의 소규모 정찰 병력이나 적의 감시소소 병력을 상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유격전방식의 전투기법으로

72)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207쪽.

생각된다. 셋째, 追擊이다. 적을 유인하여 도주하는 척하고 적을 따돌리고 배후를 공격하기도 하며 퇴각하거나 이동하는 적의 후미를 따라가 공격하는 전술이다. 넷째, 接戰으로 적과 맞붙어 싸우는 방식이다. 분대나 소대급의 병력끼리 적과 맞붙어 싸우는 전술로서 주로 화원현을 약탈하러 나온 적군을 상대로 펼치는 전투방식이다. 다섯째, 大接戰인데 접전과 같은 형태의 전투방식이나 적어도 부대병력의 절반이상이 투입된 경우로서 대규모의 적을 맞아 싸우는 전술이다. 우배선 부대가 왜군의 대규모 병력이 이동하는 것을 공격하거나 대구주둔 왜군의 대규모 병력이 보복 차 공격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전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같이 지형지세를 이용한 우배선 의병의 활동상황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도와 그림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임진년 5월경부터 계사년에 걸친 약 15개월간 총 40여 회의 전투를 치르는데, 「성주화원 의병군 공책」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전투내역을 지도 및 도면(그림)을 통해 우배선 의병진의 전투경로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화원현과 대구부의 지형⁷³⁾을 참고하여 그의 전투지를 확인해보면, 화원현 남쪽의 해발 900미터 가량의 비슬산은 청도와 현풍을 경계로 하고, 대구의 서쪽을 흐르는 낙동강은 성주와 고령을 경계로 한다. 그리고 대구를 끼고 흐르는 금호강은 낙동강의 지류로서 대구의 동쪽 해안현에서 북쪽 하빈현을 거쳐 남쪽 화원현의 경계지점인 강창(江倉)을 지나 성산(城山)⁷⁴⁾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73) 본고에서 제시한 <그림 1>은 『대구지역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2쪽에서 재인용하였다.

74) 城山은 화원현의 서남쪽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에 위치하며 성산 정상에는 신라시대에는 상화대(賞花臺)라는 전망대가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봉수대를 운영하였다. 낙동강은 이 지점에서 비슬산에서 흘러드는 달천, 감물천 등의 지류를 받아들이고, 성산 아래쪽 강변에는 화원에서 낙동강을 건너 고령현으로 들어가는 사문진나루가 있었다. 조선시대 花園倉은 낙동강을 통하여 경상도 지역의 세곡선을 운행하였고 당시 일본교역품의 보급창고인 왜물고(倭物庫)의 역할을 겸하기도

우배선 의병진의 전투지역 이동경로를 시기별로 보면, 왜란 발발 1개월 후인 임진년(1592) 창의하여 5월 23일에 의병을 인솔하고 화원현과 인근 열읍에 창의 격문을 배포하고,⁷⁵⁾ 6월경부터는 비슬산 곳곳에 매복작전을 펼쳐 왜적 수십 명을 참살⁷⁶⁾하는 전과를 올리며 전투를 이어간다. 이후 7월경 낙동강탄⁷⁷⁾의 전투에서 추격전을 펼쳐 적 수십 명을 참살 또는 사살하였고, 8월에는 화원현 원월산 아래에서 적과 접전하여 우마를 노획하고, 9월에는 초유사 김성일로부터 화원 假將에 임명되어 합천·성주지역 의병 대장인 정인홍의 휘하에서 활동하게 된다.⁷⁸⁾ 10월에는 조암에서 적을 격파하고 화원에서 적을 대파하였다.

이 시기까지의 전투는 주로 고향 마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매복과 추격을 통해 약탈을 일삼는 적을 격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후 그 해 11월부터는 전투장소를 좀 더 멀리까지 범위를 넓혀나간다. 즉 11월에는 화원에서 약 30리 가량 떨어진 낙동강 중하류 지역인 현풍현으로 나아가 쌍산역에서 적을 추격하여 대파하고 성평동에서도 적을 대파한다.⁷⁹⁾ 12월에

하였다.

75)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연보, 256쪽.

76) 앞의 책, 25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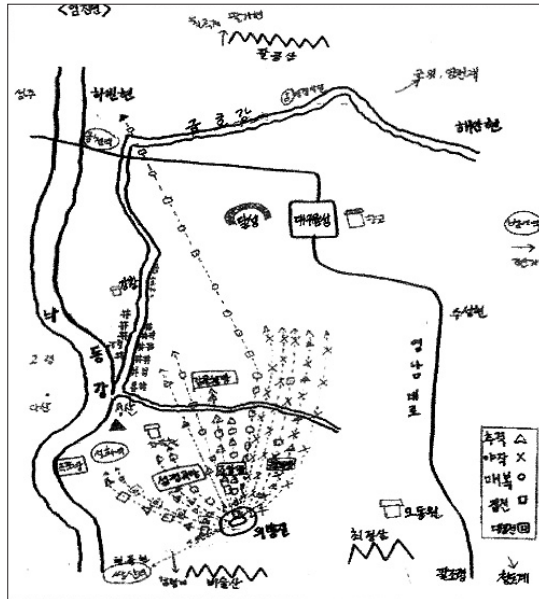
77) 이 날 우배선 의병진이 전투를 벌인 낙동강탄의 정확한 위치는 규명하기 어려우나 여기의 낙동강탄은 강창에서 낙동강 하류방향 약 3킬로미터 지점의 낙동강과 금호강, 감물천의 합류지점의 여울로 추정된다. 오늘날에는 4대강 사업으로 강정고령보가 건설되고 강정에서 금호강이 바로 낙동강과 합류할 수 있도록 물길을 터놓음으로써 낙동강 본류와 지류인 금호강 사이에 모래톱이 형성되어 섬이 만들어졌다. 두 줄기의 강물이 가운데에 습지(섬)를 두고 화원유원지의 성산 절벽 하식애에서 만나 하나의 낙동강으로 합류한다. 셋강인 금호강과 감물천의 합류지점에는 대부분 갈대밭이나 습지로 지형이 형성되어 있으며 오늘날에는 '달성 습지'로 지정되어 환경보호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78) 앞의 책, 257쪽.

79) 이로써 임란초기의 낙동강 지역의 의병들의 활동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궤재우

는 대구에 주둔한 왜적이 우배선의 향리인 화원, 감물천, 울지 등지를 분탕하므로 이를 방어하는 동시에 대구의 달성으로 진격하여 다수의 적을 죽이고 왜적이 약탈해간 노획물을 다시 빼앗는 전과를 올린다.

다음 해인 계사년(1593) 정월에는 화원현에서 약 50여 리 떨어진 대구와 청도의 경계지점인 八助嶺⁸⁰⁾으로 진격하여 적을 대파하고 상당한 전과를 올리며, 향리의 감물천과 약 30여 리 떨어진 왜군의 주둔지인 달성과 대구향교의 적을 몰아낸다. 대구 향교의 왜적 축출 시에는 그의 하인들을 동원하여 왜적에게 항복하는 형식을



<그림 3> 임진년의 전투경로

의병진이 의령에서 현풍에 이르는 남강과 낙동강 구역을 장악하였고, 낙동강의 서쪽 하천지역은 정인홍 의병진이, 화원현의 건너편 고령지역은 김면 의병진이 각각 장악하였다. 그리고 현풍 위쪽의 성산지역에서 대구의 강창, 하빈 지역까지는 우배선의 의병부대가 장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80) 팔조령은 부산에서 밀양, 청도를 거쳐 대구와 성주를 잇는 영남대로에 해당하며 대구와 청도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서, 최정산의 중간 허리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대구주둔 왜군의 청도와 밀양으로 이동하는 통로이며, 대구와 청도의 의병들이 합동작전을 펼친 곳이기도 하다. 우배선의 의병진지인 화원현에서 팔조령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려면 화원현의 뒷산인 비슬산에서 능선을 타고 비슬산의 끝자락에서 청도로 이어지는 최정산까지 이동한 것으로 생각된다.

취하며 적의 주둔지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 적의 정세를 살피게 하고 내부의 동태를 파악한 다음 적을 공격하는 전술을 사용하여 전과를 올린다.⁸¹⁾ 이러한 우배선의 전술은 매우 치밀하고 다양하여 그의 군사운용술은 특수부대의 지휘자의 모습을 엿보게 한다. 이상은 월곡실기의 연보를 통해 확인된 전투내용이다. 이후 그 해 9월에는 대구의 하빈현에서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을 만나 화원현 假將으로 임명받고⁸²⁾ 경상우도 합천·성주 지역 의병대장 정인홍의 지휘를 받도록 하명 받는다. 그의 의병 구성원은 이때부터 이전과는 달리 매우 조직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부터 그의 의병진은 본격적인 전투를 전개해 나갔으며 전투지역 또한 향촌 방위의 범위를 벗어나 대구본읍과 인근의 청도, 현풍, 팔거 지역 까지 확대해 나가게 된다.

「성주화원의병군공책」에 기록된 임진년(1592) 10월 이후의 전투내용을 종합해보면, 이 시기 우배선 의병의 낙동강 점령지역은 광재우 의병진이 확보한 낙동강 중하류지역인 현풍에서 거슬러 올라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류하는 성산 및 강창과 하빈지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추정된다. 때문에 대구부 주둔의 왜군은 낙동강을 이용한 보급로선이 차단된 결과 대구-청도-밀양을 잇는 영남대로를 통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⁸³⁾ 대구부 본읍의 관군과 부민들이 팔공산에 웅거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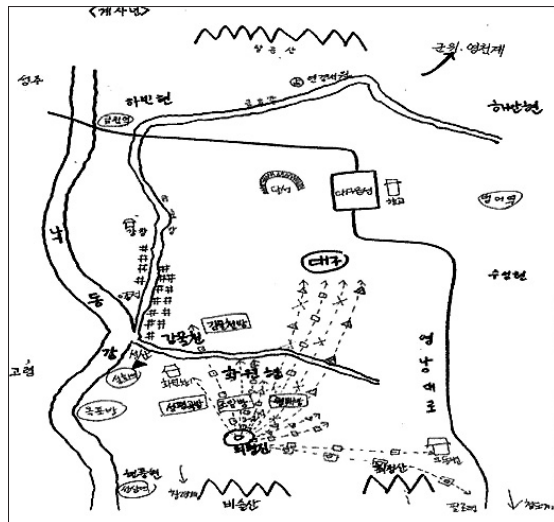
81)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지기념사업회, 1994, 99쪽.

82) 앞의 책, 257~258쪽.

83) 1593년 1월경 우배선은 낙동강 건너편에서 의병활동을 하고 있던 경상우도의 의병장 광재우와 화원현에서 회동하였는데, 이 때 광재우는 낙동강 하류지역인 현풍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배선은 현풍현 이북의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의 수로를 차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배선이 대구와 청도의 육로 이동로를 차단하고 화원과 강창까지 장악할 경우 대구부의 왜군은 낙동강을 이용한 보급선이 끊어지고 고립될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앞의 책, 149쪽, 215쪽 각주 62 참조.

이에 우배선 부대는 성주-대구 노선을 잇는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 아래위를 오가며 전투를 이어갔다. 따라서 우배선 부대의 활동은 대구부 주둔 왜군의 활동반경을 크게 축소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진년 초기와 계사년에 걸친 다수의 전공은 이러한 유격전을 통한 승리가 대부분으로 여겨진다.⁸⁴⁾ 이처럼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낙동강 화원 구간을 장악한 우배선 의병의 활동으로 인하여 대구부 남쪽지역의 안전이 보장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상좌도와 우도 간 聯合戰線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우배선 의병의 전투방법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익숙한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소수의 부대로써 다수의 적을 괴롭히는 소위 '以小擊衆' '以逸待勞'였다. 기습, 추격, 야작, 후미공격, 허리공격 등의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며 때로는 상당한 거리를 원정하기도 하였다.

그의 전투지역을 보면, 화원현에서 약 30여리 떨어진 대구부 본읍의 왜군 주둔지인 대구향교에까지 출정하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우배선의 의병부대는 조직과 전투력의 면에서 절정을 이



<그림 4> 계사년의 전투경로

84) 앞의 책에 수록된 「성주화원의병군공책」 영인본, 36~46쪽.

룬다. 우배선 의병진이 왜군이 주둔하고 있던 대구향교를 공격할 때는 사전에 철저한 첩보를 수집하고 적의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⁸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부 주둔 왜군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여종 必今과 萬愛를 적진에 다시 투입하여 정탐을 시킨다. 그리고 향교에 주둔해 있는 왜적에게 거짓 협조의 태도를 보이고 며칠 간 들락거리며 술과 떡 등 음식물을 갖다 바쳐 안심을 시키고 적의 정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적이 술에 취한 취약한 상태에 이른 시점을 잡아 기습적으로 공격에 나선다.⁸⁶⁾ 그 외에도 대구부에 십여 회에 걸쳐 야간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우배선의 병의 장거리 출정에 해당하는 대구-청도군 경계지점인 최정산, 팔조령 전투는 왜군을 매복과 기습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이곳은 임란 직후 청도군 수 裒應褻과 일부의 관군이 피신해 있던 곳으로 임진년 5월 19일경에 청도의 朴慶傳 의병진이 최정산, 팔조령의 왜군을 공격하다가 적군의 매복에 걸려 영서면 대장 이득복이 전사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은⁸⁷⁾ 곳이며, 피·야간 접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요충지이다. 당시 팔조령은 대구-청도-밀양-부산을 잇는 영남대로의 길목으로 왜군의 주요 보급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이 생사를 걸고 쟁탈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이 무렵 대구에 주둔하던 대부대의 왜군은 팔조령을 넘어 청도로 향하였는데, 팔조령 전투를 위한 우배선 의병부대의 이동경로는, 화원현에서 이곳까지 우회할 경우 거리가 약 50~60리로서 이동구간이 매우 길뿐만 아니라 대구부의 남단인 수성현과 가창⁸⁸⁾을 연결하는 육로로는 왜군의 장악으로 인하여 사실상 아군이 이동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이었다. 따라서 우배선

85) 앞의 책, 150쪽, 319~321쪽.

86) 앞의 책, 207~208쪽.

87) 『국역14의사록』, 14의사록 간행소, 1993, 162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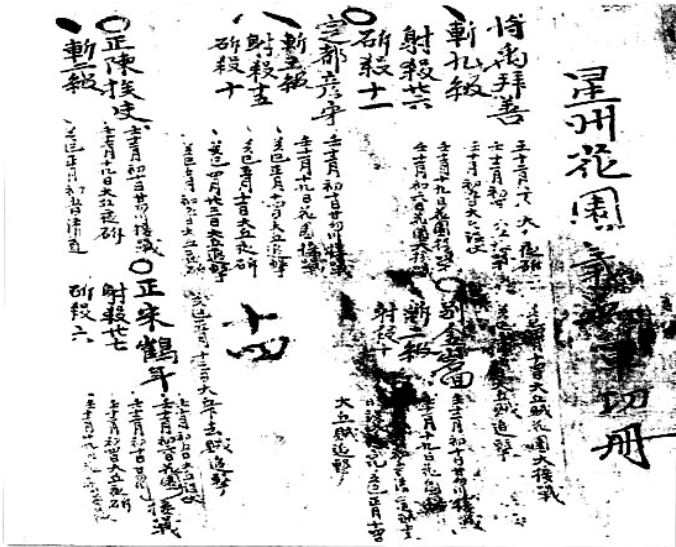
88) 임란 당시 가창에는 청도와 대구를 연결하는 영남대로 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오동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오동원은 대구에서 다음 원인 칠곡의 동명원으로 이어지는 영남대로를 이용하는 통행인들의 숙소였다.

의병부대는 적의 정찰을 피할 수 있고 이동거리도 약 1/3로 줄일 수 있는 산악경로를 택하였을 것이다. 즉 야간을 틈타 화원 뒷산인 대덕산에서 월배산 달비골 고개⁸⁹⁾를 넘어 오동원을 지나 최정산에 이르는 능선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사년(1593) 정월 우배선 의병부대는 위와 같이 화원에서 팔조령으로 밤새워 야간 이동을 강행하여 최정산 자락인 우록동에 매복군을 배치한 다음 적이 최정산 중간쯤에 도달하였을 때 우배선은 날쌔 병사들로 하여금 이들을 급습하는 한편 매복시켰던 군사들에게 적의 후미를 공격하게 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⁹⁰⁾ 이때의 우배선 의병의 군사가 500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력은 우배선 의병의 본대 이외에 관군이나 타지역 의병과의 연합병력을 포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비록 우배선 의병진이 화원현을 넘어 대구, 청도, 고령, 멀리서 합천군 삼가지역까지 활동영역을 넓혀나간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의 활동이 대구본읍 지역 의병대장인 서사원, 하빈현의 정이안, 도흥중, 수성현의 전계신, 해안현의 최동보 등의 의병과는 연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임란초기의 대구지역의 전황이 지역의병 간 상호 연합활동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즉 난의 초기에 대구의 관군민이 팔공산 지역으로 대거 피난하여 고립된 상태였고 대구부의 속현인 하빈, 수성, 해안의 각 현들은 이미 왜군의 수중에 장악되어 거의 활동이 어려운 지경이었다. 그러므로 극소수의 의병들만이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대구지역의 의병들과 우배선 의병이 상호 연합전선을 형성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배선 의병이 군사지휘체계상 경상우도에 속해

89) 우배선이 의병활동을 한 화원현 월배 뒷산의 고개마루로서 청도 쪽으로 민간인들이 자주 이용한 오래된 산길이다.

90)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의병활동』, 월곡선생창의기념사업회, 1994, 149쪽.



〈그림 5〉 성주화원의의병 군공책(출처: 「성주화원 의병군공책」의 11장 중 첫째 장(영인본의 36쪽))

있었다는 점이다. 임진년 9월 경 이후에는 초유사 김성일의 명에 의하여 외형적으로는 경상우도 합천 의병대장 정인홍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실은 임진년 10월 경에 왜군이 대구에서 현풍 방향으로 이동할 당시에 우배선이 별장 송학년, 장몽기, 허몽수 등을 거느리고 왜군을 추격하여 사살한 점, 우배선 의병이 현풍의병장 곽재우와 연합하여 회원현에서 전투를 치른 점, 도체찰부 영장인 강덕룡과 연합하여 회원현에서 고령을 거쳐 합천 삼가로 왜군을 추적해 간 사실들이 모두 경상우도의 의병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창의유록』, 『월곡실기』 등에 의거하여 우배선의 의병지휘자로서의 면모와 그의 의병진이 거둔 전과를 확인하였다. 비록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정예의 군사조직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병력으로 짧은 기간 안에 그만한 전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 그가 전개한 유격전의 전투기법과 전투경로를 지도와 도면 등을 통해 세세히 살펴보았다. 우배선은 전투성적을 의병대원 개인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였고 각 의병대원들의 신분, 직책과 역할을 상세히 기록했다. 그의 전투기법은 주로 기습, 추격, 야작(夜斫) 등 ‘以逸待勞’ ‘以小擊衆의 전술로서 적을 유인하여 지치게 만든 다음 공격하는 방법이었으며 그가 거둔 戰果는 그의 「성주화원 의병군공책」에 따르면, 89명의 인원이 임진년(1592)과 계사년(1593) 사이 약 1년 동안에 적 참살 63명, 사살(활) 604명, 작살(베어 죽임) 110명이었다.⁹¹⁾ 이 부분은 초유사 김성일의 포상 상신을 요청하는 장계에 의하여 조정에 전해졌으며 그 전과에 대하여는 일정 부분 김성일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우배선은 군수 등 관직을 제수받았고, 전란 후 국가적인

91) 임란초기 적의 기세가 치성하였을 당시에 조정에서는 아군 전과의 물증으로 적의 머리를 소금에 절여 조정에 올려 보내게 하거나 현지의 감사나 초유사, 방어사 등에게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우배선의 軍功冊에 기록된 전과는 임란 초기의 여타 의병들의 전과와 비교해볼 때 다소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과는 당시 초유사로서 활약하였던 김성일이 전투 현장을 다니며 우배선 의병진의 활동내역을 확인한 바 있었고, 그래서 김성일의 장계에 의하여 조정에서는 우배선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하였다. 선조실록에서도 宣祖가 임란 군공으로 수령직에 나갔던 우배선과 안신갑이 유사의 탄핵으로 귀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우배선과 안신갑의 역량을 인정하여 재기용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우배선의 군공이 터무니없이 과장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선조실록』 권55, 선조27년 9월 기해조.

논공행상에서 곽재우, 김면, 정인홍 등과 함께 선무원종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선조실록』에서 “용감선전”⁹²⁾하였음을 언급하고 있고, 오희문의 『鎖尾錄』 소재 呂應鍾(명나라 군인)의 「朝鮮記」와 정경운의 『孤臺日錄』에서도 그의 의병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보인다.

우배선 의병의 소규모 부대가 왜군을 상대로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던 요인은, 그가 의병부대를 특성화된 병력으로 조직하고 그 특수부대를 직접 지휘하며 부대원들과 침식을 함께하여 일심동체를 이루어 의병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였고, 유격전의 선봉으로서 앞장서서 전투를 치르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부대를 이끌어간 점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부하대원들의 군공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이를 초유사나 상부에 보고하는 등 전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의병들의 사기를 충천시킨 점에 있다고 볼 것이다.⁹³⁾ 저기예다 비슬산 등 산악지형을 이용하고 낙동강과 금호강, 그리고 향리에서 이 두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감물천과 달천, 조암들의 늪지대를 지형지물로 이용한 유인과 기습의 전략·전술의 구사가 승리의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는 만년에 스승 서사원의 학풍을 이어받아 덕동산 아래에 月谷精舍를 지어 후학을 양성하였으며⁹⁴⁾ 또한 향리의 규약을 정하여 향민들의 교

92) 『선조실록』 권55, 선조27년 9월 기해조. “傳曰古人多數本土人才以爲用, 其意有材… 但傳聞如 禹拜善 安信甲者, 勇敢善戰, 命爲守令…”

93) 실제로 임란초기에는 관군이냐 수령이냐 의병들의 전공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보고하거나 전공을 가로채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곧 의병-관군간의 알력과 불신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상주에서 의병활동을 한 趙靖의 경우, 그가 남긴 『黔澗文集』의 「임란일기」에는 임란초기 함창현감 李國弼이 의병들의 전공을 가로채고 의병활동을 방해하는 구체적 사례가 자세히 보인다.

94) 이수건은 우배선의 실기 습유조에 실린 4편의 간찰 외에는 그의 시문이나 기타 문적이 발견되지 않고 광해군 9년(1617) 鄭述가 영남지방을 유람할 때 적은 『봉래유행기』에도 우배선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므로 우배선을 학자나 文士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다(이수건, 앞의 논문, 23쪽). 그러나 당시 대구의 문풍을

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의 사후, 향민들에 의해 세거지 월촌에 그를 주향하는 德洞祠(후에 덕동서원으로 승격되고 우현보를 추향함)가 설립되었고, 純祖朝에 편찬된 『대구읍지』의 인물조와 학교조에 그의 행적이 실렸다.

그의 의병활동의 주요 무대였던 대구지역은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으므로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의병부대가 왜군을 상대로 벌인 전투는 대구지역의 방위와 보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부 본읍의 부사와 관군 및 재지사족들이 팔공산에 웅거하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성주-대구 노선을 잇는 낙동강과 금호강의 합류지점 아래쪽을 장악하여 전투를 이어간 우배선 부대의 활동은 대구부 주둔 왜군의 활동을 제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우배선의 소수 정예 병력이 지형지세를 이용하여 공격과 방어를 연이어나간 것은 임란초기 대구부의 방어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배선의 의병활동은 대구부를 지켜냈고, 대구부의 재건은 곧 육전에서의 최초의 승전으로 일컫는 영천성의 탈환과 뒤이은 경주성 복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20.05.07. 투고 / 2020.07.23. 심사완료 / 2020.07.25. 게재확정)

진작한 유학자로서 대구 의병대장이었던 서사원의 『낙재일기』에는 여러 차례 우배선과의 각별한 교류를 보여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서사원의 문집에는 우배선이 서사원의 제자로서 문우록에 올라 있음이 보인다. 우배선의 학자적 풍모 여부는 주변 자료를 통하여 좀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할 것 같다. 우배선이 당시 영남의 학풍을 이끌었던 한강 정구나 낙재 서사원과의 학문적 사승관계나 그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e Activities of Righteous Armies in the Daegu Area
– Focusing on Woo Bae-Seon and his righteous troop –

Park, Soon-ji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activities of righteous armies based on the Daegu area during the early period of Imjin Waeran(壬辰倭亂), focusing precisely on Woo Bae-Seon(禹拜善) and his small-size righteous troop(義兵).

Daegu was occupied with the advance of Japanese troops in the early invasion of Japan. As a result, more than 2,000 people fled to the Mt. Palgongsan north of Daegu and were urgently trying to defend themselves. In this critical time, a young 24-year-old leader Woo Bae-Seon raised a righteous army with a minority of about 100 people.

His main activity area, Wha-won heon(花園縣), is the southwestern part of Daegu, where was very easy to disturb the Japanese camp.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Japanese army stationed in Daegu was enormous. But he used local topography to conduct shortstop and raids. His guerrilla tactic against the Japanese army was successful and had a remarkable record of over a year.

His troops were organized into small special forces suitable for the range of tactics. Eating and sleeping with the members together, the leader Woo Bae-Seon took the initiative by directing the unit. In addition, the achievements of the subordinates were recorded regardless

of his status to promote morale of the members.

These activities have had the effect of stopping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troops in Daegu. As a result, Daegu was able to be defended. And it had the effect of blocking supply lines and communication networks between Japanese Army and Daegu garrison. By defending Daegu in this way, i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recapture of Yeongcheon and the restoration of Gyeongju.

□ Keyword

Woo Bae-Seon, Imjin Waeran, Righteous armies, Guerrilla Tactic, Whawon Hyeon

[참고문헌]

1. 사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宣撫原從功臣錄券』, 『嶠南誌』, 『大邱邑志』

禹拜善, 『倡義遺錄』, 『月谷實記』

郭再祐, 『忘憂堂全書』, 『龍蛇世講錄』

金沔, 『松庵文集』, 『松庵先生實記』

金誠一, 『鶴峯全集』

徐思遠, 『樂齋先生文集』, 『樂齋先生日記』

吳希文, 『瑣尾錄』

柳成龍, 『懲毖錄』

鄭慶雲, 『孤臺日錄』

趙慶男, 『亂中雜錄』

李魯, 『龍蛇日記』

李恒福, 『白沙集』

曹植, 『南冥集』

趙靖, 『壬亂日錄』, 『黔澗先生 壬亂日記』

韓國古典綜合 DB(db.itkc.or.kr)

2. 논저

최영희, 『임진왜란 중의 사회동태』, 한국연구원, 1975.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편, 『경북의병사』, 경상북도 교육위원회, 1984.

한국학문헌연구소편, 『임진왜란관계문헌총간』, 아세아문화사, 1984.

국사편찬위원회편, 『임진왜란의 재조명』, 1988.

경상북도편, 『경북의병사』, 1990.

월곡선생 창지사업기념회편, 『월곡 우배선 선생의 생애와 義兵活動』,

1994.

-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29, 1995.
- 김강식,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혜안, 2001.
- 최효식, 『壬辰倭亂期 嶺南義兵研究』, 국학자료원, 2003.
-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 이장희, 『壬辰倭亂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7.
- 『대구지역 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 『경북지역 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8.
- 김석희, 「임진란의 의병에 관한 재고찰」 『부산대학교 논문집』 13, 1972.
- 김윤곤, 「조선전기 군량미의 확보와 운송 -임란당시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32, 1981.
- 문수홍, 「임란 중 경상좌도 지방의 의병활동」, 『남도영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1983.
- 이태진, 「임진왜란 극복의 사회적 동력 -사람의 의병운동의 기저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5, 한국정신문화원, 1983.
- 장동익, 「월곡우배선의 임진의병활동」, 『역사교육논집』 18,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1983.
- 이수건,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 김강식, 「임진왜란과 의병운동의 성격」, 『부대사학』 17, 부산사학회, 1993.
- 송정현, 「壬辰倭亂 -官軍과 義兵의 역할문제-」, 『전남사학』 8, 1994.
- 김강식, 「임진왜란과 의병의 성격변화 -의병의 관군화 문제-」, 『부대사학』 19, 부산사학회, 1995.
- 우인수, 「『樂齋日記』를 통해본 대구지역 임진왜란 의병의 활동과 성격」, 『대구사학』 123, 대구사학회, 2016.
-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대구권역의 의병운동과 변화 -낙동강 유역을 중

- 심으로-, 『대구지역 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 이욱, 「임진왜란 초기 대구지역의 의병활동」, 『대구지역 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 구본욱, 「대구 유림의 임진란 창의와 팔공산 회맹」, 『대구지역 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
- 김경태, 「임진란기 대구지역의 의병활동과 명군·일본군의 동향 -우배선 장군을 중심으로-」, 『대구지역 임진란사』,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7.